

# 새야, 날아라~

4월과 5월의 공원에는 새들의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가득한데요~  
이는 봄을 맞이한 새들이 서로의 짝꿍을 찾기 위한 소리랍니다.



창포원에서도 여기저기서 다양한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럼 창포원에는 어떤 새들이 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이처럼 창포원에도 이렇게 귀여운 새들이 더불어 살고 있어요!  
앞으로 창포원에서 위 새들을 만나게 된다면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새와 함께 놀아 볼까요?  
새야 새야 날아라~-준비물



나무젓가락



색종이  
(전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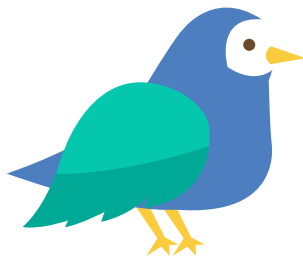
가위



고무줄  
(30cm)



테이프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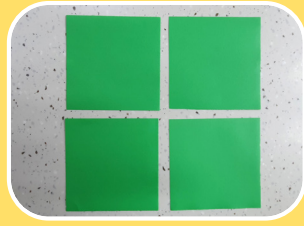
색종이 한 장이면 새 4마리를 만들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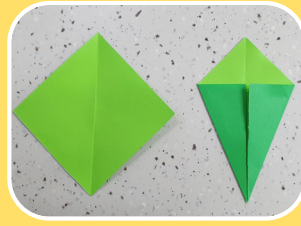
## 만드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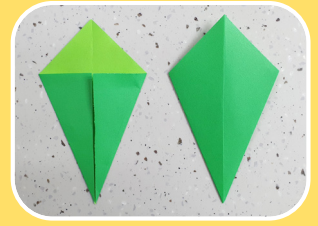
01 재료를 준비해요



02 색종이를 4등분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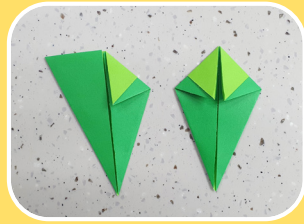
03 대각선으로 반을 접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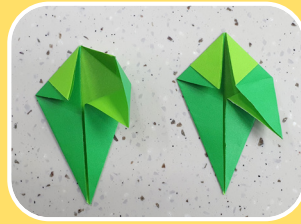
04 가운데 선에 맞춰 양쪽을 접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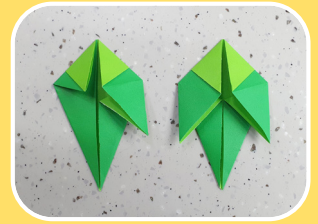
05 윗부분에 남은 삼각형은 반대쪽으로 접어요



06 가운데 선에 맞춰 양쪽 모서리를 아래쪽으로 접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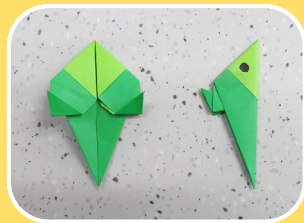
07 접힌 부분을 위로 올려 아래 그림처럼 만드세요



08 양쪽을 똑같이 접으면 날개완성



09 가운데 선을 한 번 더 눌러서 새의 등을 완성해 주세요



10 새의 발도 만들어 주세요



11 양쪽 면에 눈을 그려주면 성공



12 젓가락에 고무줄을 붙여 새총을 만드세요



13 새와 새총을 준비하고



14 새의 다리부분에 고무줄을 걸고



15 새야 날아라~



종이는 색종이보다는 전단지처럼 약간 두꺼운 것이 잘 날아요.  
새 가슴 부분에 테이프로 살짝 붙여주면 날아갈 때 벌어지지 않고 멀리 날아요.  
나만의 새를 만들어서 멀리 멀리 날려 보세요~  
방에 과녁을 만들어 붙이고 새총으로 과녁 맞추기 놀이를 해도 좋습니다^^

\*놀이할 때 주의할 점  
새를 날려 보낼 때는 사람이 없는 곳을 향해 날려 보내 주세요!!

만든이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생태강사 박주연,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코디네이터 김정희